11. null 대신 Optional null 대신 Optional 클래스

null의 문제점과 Optional을 통한 안전한 코드 작성법

0. 읽기 전...

갑자기 11장이 나왔지만, 우선 중요한 내용하다가 추후 다시 포스팅 할 예정이다. 우선 11장부터 학습하자.

1. null이란?

null은 참조 변수가 아무 객체도 가리키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주소 값이 없는 상태이다.

null의 특징

- 원시 타입(int, double, boolean)에는 null을 담을 수 없다
- 객체 참조 타입(String, Integer, List 등)에만 사용 가능하다

2. 값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살펴보자.

```
public String getCarInsuranceName(Person person) {
    return person.getCar().getInsurance().getName();
}
```

위 코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 만약 Person이 null이라면?
- getCar()가 null을 반환한다면?
- getInsurance()가 null을 반환한다면?

모든 경우에 NullPointerException(NPE)이 발생한다.

2.1 보수적인 자세로 NPE 줄이기

예기치 않은 NullPointerException(NPE)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null 확인 코드를 추가**하여 null 예외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
if (person != null) {
    Car car = person.getCar();
    if (car != null) {
        Insurance insurance = car.getInsurance();
        if (insurance != null) {
            return insurance.getName();
        }
    }
}
return "Unknown";
```

변수를 참조할 때마다 null을 확인하며, 중간 과정에 하나라도 null이 있으면 "Unknown"을 반환한다.

각각의 조건문을 통해 모든 변수가 null인지 의심하게 된다. if 문이 추가되면서 **코드 들여쓰기 수준이 증가** 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반복 패턴을 **깊은 의심(deep doubting)**이라고 부른다.

2.2 null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에러의 근원

NullPointerException(NPE)이 발생한다.

코드를 어지럽힌다

중첩된 null 확인 코드가 추가되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아무 의미가 없다

null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값의 부재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자바 철학에 위배된다

자바는 개발자로부터 **포인터를 숨겼다**. 하지만 **null 포인터**가 예외이다.

형식 시스템에 구멍을 만든다

- null은 무형식이며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모든 참조 타입에 null을 할당할 수 있다
- null이 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 전파되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3. Optional 클래스 소개

java.util.Optional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를 나타내는 **컨테이너 클래스**이다.

Wrapper 객체로, 내부에 실제 값(또는 null)을 한 칸 담고 있는 상자로 비유할 수 있다.



Optional의 동작 방식

- 값이 있으면 **Optional 클래스가 값을 감싼다**
- 값이 없으면 Optional.empty() 메서드로 Optional을 반환한다

Optional.empty()는 싱글톤 인스턴스를 반환한다. null을 참조하면 NPE가 발생하지만, Optional.empty()는 Optional 객체이므로 활용이 가능하다.

Optional의 내부 구조

- Optional은 내부적으로 value라는 필드를 가진다
- of()는 null을 허용하지 않는다
- ofNullable()은 null일 경우 **빈 Optional**을 반환하며, null이 아닌 경우에는 **Optional로 감싼 값 객체** 를 반환한다
- empty()는 싱글톤 EMPTY 인스턴스를 재사용한다

Optional을 이용하면 값이 없는 상황이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의 버그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null 참조를 Optional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ptional은 더 이해하기 쉬운 API를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다.

3.1 Optional의 본래 목적

"없을 수 있는 값"을 반환하거나 전달할 때, **타입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메서드 반환 값**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예시:

```
Optional<User> findById(Long id);
```

위와 같이 반환 타입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메서드는 User를 찾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모든 null을 Optional로 바꾸면 생기는 문제

1) 필드에 사용할 경우

```
class User {
   private Optional<String> name;
   ...
}
```

문제점:

- 객체 안의 필드가 Optional이면, 그 객체를 사용할 때마다 map(), orElse()로 감싸야 한다
- Jackson, JPA 같은 프레임워크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null 대신 **빈 문자열 또는 기본 값 사용**을 추천한다.

2) 매개변수에 사용할 경우

```
void updateUser(Optional<User> userOpt);
```

문제점:

- 호출하는 쪽에서 매번 .ofNullable()을 해야 한다
- 매개변수는 null을 허용하고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3) 좋은 사용법

메서드 반환 타입으로 사용하여 값이 없을 수 있음을 명확히 표현한다.

```
Optional<User> findByEmail(String email);
```

4) 나쁜 경우

- 필드에 사용
- 매개변수에 사용
- 컬렉션에 사용 (컬렉션은 빈 리스트 반환이 더 직관적이다)

4. Optional 적용 패턴

4.1 Optional 객체 만들기

Optional을 사용하려면 먼저 Optional 객체를 만들어야 한다.

1) 빈 Optional 만들기

정적 팩토리 메서드 Optional.empty()로 빈 Optional 객체를 얻을 수 있다.

```
Optional<Car> optCar = Optional.empty();
```

2) null이 아닌 값으로 Optional 만들기

정적 팩토리 메서드 Optional.of()로 null이 아닌 값을 포함하는 Optional을 만들 수 있다.

```
Optional<Car> optCar = Optional.of(car);
```

주의: car가 null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발생한다.

3) null 값으로 Optional 만들기

Optional.ofNullable()로 null 값을 저장할 수 있는 Optional 객체를 만들 수 있다.

```
Optional<Car> optCar = Optional.ofNullable(car);
// car가 null이면 빈 Optional 객체를 반환한다
```

4.2 map으로 Optional의 값을 추출하고 변환

보통 객체의 정보를 추출할 때 Optional을 사용할 때가 많다.

```
String name = null;
if (insurance != null) {
   name = insurance.getName();
}
```

이런 유형의 패턴에 사용할 수 있게 map 메서드를 지원한다.

```
Optional<Insurance> optInsurance = Optional.ofNullable(insurance);
Optional<String> name = optInsurance.map(Insurance::getName);
```

스트림의 map 메서드와 **개념적으로 비슷**하다. 여기서 Optional 객체를 **최대 요소의 개수가 1개 이하인 데이터 컬렉션**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Optional이 **값을 포함**하면 map의 인수로 제공된 함수가 값을 변환한다
- Optional이 비어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map() 메서드가 실행되지 않는다)

4.3 flatMap으로 Optional 객체 연결

다음과 같은 도메인 모델을 생각해 보자.

```
public class Person {
    private Optional<Car> car;
    public Optional<Car> getCar() { return car; }
}

public class Car {
    private Optional<Insurance> insurance;
    public Optional<Insurance> getInsurance() { return insurance; }
}

public class Insurance {
    private String name;
    public String getName() { return name; }
}
```

다음과 같이 체이닝을 시도해 보자.

```
Optional<Person> optPerson = Optional.of(person);
Optional<String> name =
    optPerson.map(Person::getCar)
        .map(Car::getInsurance)
        .map(Insurance::getName);
```

위 코드는 컴파일되지 않는다.

이유:

- 첫 번째 map 메서드에서 getCar()는 Optional 형식의 객체를 반환한다
- 하지만 map의 결과는 Optional<Optional> 형식의 객체이다
- 두 번째 map 메서드에서 **getInsurance()**는 또 다른 Optional 객체를 반환하므로 **getInsurance()를** 지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flatMap 메서드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flatMap은 인수로 받은 함수를 적용해서 생성된 각각의 스트림에서 **콘텐츠만 남긴다**. 즉, 함수를 적용해 생 성된 모든 스트림이 **하나의 스트림으로 병합되어 평준화**된다.

설명:

- 1. Person::getCar가 Optional를 반환한다. map을 사용하면 다시 감싸서 중첩이 된다. 이를 풀어주는 것이 flatMap()이다. 1번의 반환 값은 Optional이다
- 2. Optional를 반환한다
- 3. Optional을 반환한다
- 4. 결과 Optional이 비어있으면 기본 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null을 확인하느라 조건 분기문을 추가해서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flatMap과 map의 차이

map()은 내부 값을 꺼내서 함수를 적용한 후 **다시 상자에 넣는다**

Person::getCar가 반환하는 것이 이미 Optional라는 상자이다

그럼 map()이 그 상자를 또 감싸서 Optional<Optional>가 되어버린다

flatMap()은 이미 Optional로 감싸진 결과를 평평하게(flat) 만들어준다

4.3.1 도메인 모델에 Optional을 사용했을 때 직렬화가 불가능하다고?

자바 언어 아키텍트인 **브라이언 고츠(Brian Goetz)**는 Optional의 용도가 **선택형 반환 값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Optional 클래스는 **필드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여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메인 모델에 Optional을 사용한다면 **직렬화 모델을 사용하는 도구나 프레임워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4.4 Optional 스트림 조작

자바 9에서는 Optional을 포함하는 스트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Optional에 **stream() 메서드**를 추가했다.

```
.collect(toSet()); // 중복 제거
}
```

설명:

- 첫 번째 map 변환 수행 후 Stream<Optional>를 얻는다
- 두 개의 map 연산을 이용해 Optional → Optional로 변환한다
- 마지막으로 Optional으로 변환한다

하지만 중간 결과가 비어있을 수 있고, 마지막 결과를 얻으려면 **빈 Optional을 제거하고 값을 언랩**해야 한 다.

전통적인 방식

stream() 메서드 사용

Optional 클래스의 stream() 메서드를 이용하면 한 번의 연산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5 디폴트 액션과 Optional 언랩

4.5.1 디폴트 액션

orElse(T other)

- 값이 있으면 그대로 반환하고, 없으면 other를 반환한다
- other는 항상 평가되므로 무거운 연산은 피해야 한다

```
Optional<String> opt = Optional.empty();
String value = opt.orElse("기본 값");
```

orElseGet(Supplier<? extends T> supplier)

- 값이 있으면 그대로 반환하고, 없으면 Supplier의 실행 결과를 반환한다
- orElse와 달리 필요할 때만 실행한다
- 무거운 연산이나 Lazy 로딩에 적합하다

```
Optional<String> opt = Optional.empty();
String value = opt.orElseGet(() -> expensiveOperation());
```

orElseThrow()

• 값이 있으면 반환하고, 없으면 NoSuchElementException을 발생시킨다

```
Optional<String> opt = Optional.empty();
String value = opt.orElseThrow(); // 예외 발생
```

orElseThrow(Supplier<? extends X> exceptionSupplier)

• 값이 없으면 예외를 던지는데, 이때 **예외를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4.5.2 언랩

get()

- Optional 내부 값을 반환한다
- 값이 있으면 해당 값을 반환하고, 없으면 NoSuchElementException을 발생시킨다
- 반드시 값이 있다고 가정하는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Optional<String> opt = Optional.of("TEST");
String value = opt.get();
```

isPresent()

-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이다.
- 전통적인 null 체크와 비슷하다
- 최근에는 ifPresent()를 더 권장한다

isEmpty()

• 값이 없으면 true이다

ifPresent(Consumer<? super T> action)

• 값이 있으면 Consumer를 실행한다

```
opt.ifPresent(v -> System.out.println(v));
```

ifPresentOrElse(Consumer<? super T> action, Runnable emptyAction)

• 첫 번째 매개변수: 값이 있으면 실행한다

• 두 번째 매개변수: 값이 없으면 실행한다

```
opt.ifPresentOrElse(
   v -> System.out.println(v),
   () -> System.out.println("empty")
);
```

4.6 필터로 특정 값 거르기

Optional 객체에 filter 메서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재구현할 수 있다.

```
Optional<Insurance> opt = ...;
opt.filter(insurance ->
    "CambridgeInsurance".equals(insurance.getName())
).ifPresent(x -> System.out.println("OK"));
```

동작 방식:

- Optional 객체가 값을 가지며 프레디케이트와 일치하면 filter 메서드는 그 값을 반환한다
- 그렇지 않으면 **빈 Optional 객체**를 반환한다

Optional은 최대 1개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스트림과 같다.

4.6.1 Optional 클래스의 추가적인 메서드

filter()

- 값이 존재하며 **프레디케이트와 일치**하면 값을 포함하는 Optional을 반환한다
- 값이 없거나 프레디케이트와 일치하지 않으면 **빈 Optional**을 반환한다

stream()

- 값이 존재하면 **존재하는 값만 포함하는 스트림**을 반환한다
- 값이 없으면 빈 스트림을 반환한다

or()

- 값이 존재하면 **같은 Optional**을 반환한다
- 값이 없으면 Supplier에서 만든 Optional을 반환한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메서드들이 있는데,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공식 문서를 참고하자.

5. 기본형 Optional

Optional에도 기본형 특화가 있다. OptionalInt, OptionalLong, OptionalDouble 등이 있다.

하지만 기본형 Optional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

1) 성능 이득이 거의 없다

- 기본형 특화는 내부적으로 단순히 **Optional** 같은 **오토박싱을 피하는 정도**이다
- 하지만 Optional은 최대 요소 수가 1개이므로 성능상 거의 이득을 볼 수 없다

2) 기능 제약

- 기본형 특화는 map, flatMap, filter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 이를 통해 생성한 결과는 **다른 일반 Optional과 혼용하지 못한다**

6. Optional 사용 시 주의사항

☑ 좋은 사용법

- 1. 메서드 반환 타입으로 사용
- 2. 값이 없을 수 있음을 **타입으로 명시**
- 3. orElse(), orElseGet(), orElseThrow()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

🗙 나쁜 사용법

- 1. 필드에 사용하지 않기
- 2. 매개변수에 사용하지 않기
- 3. 컬렉션의 요소로 사용하지 않기
- 4. 기본형 Optional 사용하지 않기

7. 정리

Optional은 null 참조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도구이다.

- 값이 없을 수 있음을 타입 시스템으로 명시한다
- map, flatMap, filter 등의 메서드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지원한다
- null 체크 지옥에서 벗어나 더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null을 Optional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Optional의 본래 목적인 **메서드 반환 타입**에 주로 사용하고, 필드나 매개변수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Optional은 "값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API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도구이다.